

대구 · 경북지역 노인의 의치장착실태 및 관련 요인

한 석 윤, 이 화 식, 이 종 도
대구보건대학

Relate Factors on the Wearing Dentures Status of the Elderly in Daegu · Kyungpook Areas

Sok-Yoon Han, Hwa-sik Lee, Jong-do Lee
Depart. of Dental Technology, Daegu Health College 702-722, Korea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wearing dentures status of the elderly and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 sociological properties, oral health care habits, lifestyle, and whether they wears dentures or not.

Methods: In a surveying of 349 elderly who lives in Daegu and Kyung-pook,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Results: Wearing dentures rates of the aged are 58.5%. The more the aged is female($p=0.025$), elderly($p=0.000$), a low education level($p=0.000$), no job($p=0.006$), and a solitary person($p=0.016$) the higher rate they wears dentures. The more the aged brushes their teeth after each meal($p=0.029$) and uses the oral health devices($p=0.000$) the lower rate they wears dentures. The more the aged have dinner alone($p=0.009$), do not kept up with the exercises ($p=0.000$), and would like to dine off a soft food($p=0.000$) the higher rate they wears dentures.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an old people's condition of oral health care who live in Daegu · Kyung-pook is very serious. Therefor not only an elderly but other aged people is need of constant and organized education for taking their oral health care habits and changing their lifestyle. Because wearing dentures rates of the aged by demographic · sociological properties, oral health care habits, and lifestyle is lower.

○ **Key words :** elderly condition, Wearing Dentures, oral health, life style

교신저자	성명	한 석 윤	전화	011-545-9765	E-mail	sokyooh@dhc.ac.kr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1동 산 7번지 대구보건대학 치기공과					
접수일	2010. 10. 21		수정일	2010. 10. 28		확정일	2010. 11. 30

I. 서론

우리나라는 2008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앞으로 10년 후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된다. 또한 2010년 우리나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1.0%로 노인건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 2008). 노인의 건강 유지에는 구강상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 치아상태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다. 2003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65~74세)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치아의 수는 평균 12.6개이고, 의치 필요자율은 42.5%, 2006년 조사에서는 노인(65~74)의 자연치아수는 17.2개, 의치필요자율 35.3%, 저작불편 호소율은 53%라고 하였다. 노인이 치아를 상실하면, 저작능력이 저하되어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의 선택범위가 좁아지고, 식사의 양과 질 역시 저하됨으로써 건강과 체력을 잘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발음과 외모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 소외감 및 고립감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장익준 외, 2006). 노인의 치아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구강건강을 증진시켜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의치보철치료다(이정화 외, 2007).

노인의 의치장착은 구강증상 및 구강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의치가 없는 무치악 노인집단의 의치가 있는 노인집단에 비해 저작능력과 대화능력 및 사회적 관계에서 장애가 크다(박주희 외, 2002). 이처럼 의치는 치아상실이 많은 노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은 무치악자 비율이 16.2%로 매우 높고(권미영 외, 2006), 노령으로 인한 치아손실로 의치보철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많은 불편함을 겪으며 지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정효경, 2007). 또한 의치의 평균 수명은 6.6년으로 모든 의치를 매 6년마다 새로 제작하여야(강기호 외, 2001) 하는 문제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대다수에게 의치 치료를 받는 것을 포기 하게 만들어 구강건강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한다. 이러한 노인의치의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의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노인 의치와 관련하여 조사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류동희 외, 2000) 의치 만족도 및 의치보철사업과 관련한 연구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의치장착실태를 조사하여 노인의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강관리습관, 생활습관과 의치장착여부와 관련성을 파악하여 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구강건강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우리사회가 급속도로 노령화됨에 따라 노인 건강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9%가 상·하 치아 모두가 빠진 상태였고, 상악 치아만 혹은 하악 치아만 모두 빠진 경우를 포함하면 44%로 조사되었다.

지난 1년간 씹기 문제가 자주 혹은 가끔 있었다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50%를 상회하였으며, 음식물 저작 문제의 해결은 노인들의 생존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며, 치과 의료서비스의 의료이용 불평등이 다른 의료서비스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즉, 빈곤층의 치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대단히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 틀니 급여보장은 1996년 김영삼 정부의 총선 공약,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새 정부 100대 과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 보고 등 사회적 논의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현정부의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노인의치 보철화를 위해 연구 중이다.

특히, 치기공협회에서도 다가올 노인의치 보험화 시대를 대비하여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 말까지 대구·경북(경산, 하양, 포항, 문경, 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표본은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보조원 4명이 노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읽어주고 대신 작성하였으며, 총 400부를 배부하여 응답이 부실한 51부를 제외한 349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조사내용은 표 1과 같이 연구대상자의 의치장착실태 관련 2문항, 인구·사회학적 특성 6문항, 구강관리습관 5문항, 생활습관 8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설문지 구성내용

설문 구성	내 용
의치장착실태	의치장착유무, 의치장착부위(상악틀니, 하악틀니, 상하악 틀니)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직업유무, 동거형태, 거주지역
구강관리습관	구강검진, 잇솔질 빈도, 잇솔질 시기, 혀 닦기,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여부
생활습관	식사인원, 규칙적 식사여부, 흡연여부, 음주여부, 선호음식의 강도, 간식섭취여부, 선호음식유형, 단음식 선호도

3. 자료 분석방법

자료의 처리는 의치장착실태의 경우 빈도분석을 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강관리습관 및 생활습관과 의치장착여부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PSS/PC 14.0 버전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의치장착실태는 표 2와 같다. 총 349명 중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노인은 58.5%, 의치를 장착하지 않은 노인은 41.5%였다. 의치 장착자 중 15.2%는 상악에만, 15.7%는 하악에만 의치를 하고 있었으며, 69.1%는 상·하악 모두 의치를 장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의치장착실태

구 분	의치 장착 인수(%)	총 인수(%)
의치 장착	상악 의치	31(8.9)
	하악 의치	32(9.2)
	상·하악 의치	141(40.4)
소 계	204(58.5)	204(58.5)
의치 미 장착		145(41.5)
총 계		349(100.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의치장착여부는 표 3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의치를 장착 하고 있는 경우는 51.4%, 여자는 63.4%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의치장착 비율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p=.025$). 연령별로는 65-74세의 노인 중에서는 의치를 장착하지 않은 노인의 비율이 52.6%로 의치를 장착한 경우보다 높았으나 75세 이상 노인은 76.1%가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5세 이상의 경우가 65-74세보다 의치 장착율이 더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학력수준별로는 무학의 경우 74.7%, 초등졸 58.4%, 중졸 52.2%가 의치를 장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졸 이상에서는 61.2%가 의치를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의치장착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p=.000$). 거주 지역별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54.5%가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반면에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의 65.1%가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에 비해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의치 장착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직업유무에서 직업이 있는 경우는 의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가 51.7%로 많았으나 무직의 경우는 63.6%가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무직이 직업이 있는 경우 보다 의치 장착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p=.006). 거주상태별로는 혼자 사는 노인의

70.1%, 다른 가족 및 친척과 사는 노인의 59.5%가 의치를 장착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노인부부만 사는 경우에는 50.4%가 의치를 장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일수록 의치 장착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6).

구강관리습관에 따른 의치장착여부는 표 4와 같다. 정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의치장착

	구 분	의치 장착자	의치 미장착자	계	χ^2 (p-value)
성별	남	74(51.4)	70(48.6)	144(100.0)	5.037 (0.025)
	여	130(63.4)	130(63.4)	205(100.0)	
연령	65-74	102(47.4)	113(52.6)	215(100.0)	27.955 (0.000)
	75세 이상	102(76.1)	33(23.9)	134(100.0)	
학력	무학	74(74.7)	25(25.3)	99(100.0)	22.220 (0.000)
	초등졸	80(58.4)	57(41.6)	137(100.0)	
	중졸	24(52.2)	22(17.8)	46(100.0)	
	고졸 이상	26(38.8)	41(61.2)	67(100.0)	
거주지역	도시	120(54.5)	100(45.5)	220(100.0)	3.742 (0.053)
	농촌	84(65.1)	45(34.9)	129(100.0)	
직업유무	있음	57(48.3)	61(51.7)	118(100.0)	7.559 (0.006)
	없음	147(63.6)	84(36.4)	231(100.0)	
거주상태	혼자 산다	54(70.1)	23(29.9)	77(100.0)	8.247 (0.016)
	노인 부부만 산다	59(49.6)	60(50.4)	119(100.0)	
	가족 및 친척과 산다	91(59.5)	62(40.5)	153(100.0)	

기적으로 구강검진을 하는 경우는 54.1%가 의치를 장착한 반면, 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는 60.5%가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가 검진을 하는 경우보다 의치 장착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잇솔질 빈도에서 하루에 1회 이를 닦는 경우는 60.9%가 의치를 하고 있었으나 2회의 경우는 61.8%, 3회 이상의 경우는 54.4%가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회 이상 이를 닦는 경우가 의치 장착율이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잇솔질 시기에서는 매 식후 이를 닦는 경우에서 54.0%가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의 시기에 이를 닦는 경우에서는 64.6%가 의치를 장착한 것으로

나타나 매 식후 이를 닦을수록 의치 장착율이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9). 잇솔질을 할 때 혀를 닦는 경우에는 57.8%가 의치를 장착하고 있었으나 혀를 닦지 않는 경우에는 60.2%가 의치를 장착하고 있어 혀를 닦는 경우가 닦지 않는 경우보다 의치 장착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여부에서는 사용하는 경우의 61.5%가 의치를 장착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63.0%가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위생보조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사용하는 경우보다 의치장착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표 4. 구강관리습관에 따른 의치장착

구 분	의치 장착자	의치 미장착자	계	χ^2 (p-value)	
구강검진	예	60(54.1)	51(45.9)	111(100.0)	1.297 (0.255)
	아니오	144(60.5)	94(39.5)	238(100.0)	
잇솔질 빈도	1회	42(60.9)	27(39.1)	69(100.0)	1.808 (0.405)
	2회	81(61.8)	50(38.2)	131(100.0)	
	3회 이상	81(54.4)	68(45.6)	149(100.0)	
잇솔질 시기	매식 후	109(54.0)	93(46.0)	202(100.0)	3.985 (0.029)
	기타	95(64.6)	52(35.4)	147(100.0)	
혀 닦기	예	148(57.8)	108(42.2)	256(100.0)	0.162 (0.687)
	아니오	56(60.2)	37(39.8)	93(100.0)	
구강위생보조 용품 사용여부	예	25(38.5)	40(61.5)	65(100.0)	13.145 (0.000)
	아니오	179(63.0)	105(37.0)	284(100.0)	

생활습관에 따른 의치장착여부는 표 5와 같다. 혼자 식사를 하는 노인의 69.3%가 의치를 장착한 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54.0%가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혼자식사를 하는 경우일수록 의치장착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9).

규칙적 식사습관에서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는 56.7%가 의치를 장착하고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66.7%가 의치를 장착한 것으로 나타나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일수록 의치장착율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운동습관에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58.0%가 의치를 장착하지 않은 반면에 보통의 경우에는 50.0%, 운동을 안 하는 경우에는 72.2%가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안하는 경우보다 의치장착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흡연의 경우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경우는 58.6%, 피우다 끊은 경우는 59.3%, 현재 피우는 경우는 56.9%가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우다 끊은 경우의 의치장착율이 가장 높았다. 음주의 경우 역시 안 마신다 57.8%, 마시다 끊음 59.3%, 현재 마심 55.4%가 의치를 장착하고 있었다. 선호음식의 강도에서 음식 강도 선호 경향이 따로 없는 경우 64.8%가 의치를 장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한음식을 선호하는

경우는 66.7%가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한 음식을 선호할수록 의치장착율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간식섭취여부에서 간식을 안 하는 경우는 57.6%, 가끔 간식을 섭취하는 경우는 56.7%, 자주 간식을 하는 경우는 68.0%가 의치를 장착하였으며 자주 간식을 하는 경우의 의치장착율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선호음식에서는 채식을 선호하는 경우 64.8%, 육식을 선호하는 경우는 56.0%, 채식과 육식을 모두 선호하는 경우에는 53.6%가 의치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채식 선호의 경우가 의치장착율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단음식 선호도 역시 달게 먹는 경우는 65.2%, 보통인 경우는 53.6%, 안 달게 먹는 경우는 64.4%가 의치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달게 먹는 경우의 의치장착율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IV. 고 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64.5%가 다른 어떤 건강문제 보다도 구강건강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고 한다. 노인들이 이처럼 구강건강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유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치아상실의 수가 증가하고,

표 5. 생활습관에 따른 의치장착

구 분		의치 장착자	의치 미장착자	계	χ^2 (p-value)
혼자식사	예	70(69.3)	31(30.7)	101(100.0)	6.895 (0.009)
	아니오	134(54.0)	114(46.0)	248(100.0)	
규칙적 식사	예	164(56.7)	125(43.3)	289(100.0)	2.013 (0.156)
	아니오	40(66.7)	20(33.3)	60(100.0)	
운동시간	규칙적	34(42.0)	47(58.0)	81(100.0)	24.822 (0.000)
	보통	53(50.0)	53(50.0)	106(100.0)	
	안함	117(72.2)	45(27.8)	162(100.0)	
흡연	피운적 없음	123(58.6)	87(4.4)	210(100.0)	0.081 (0.960)
	피우다 끊음	48(59.3)	33(40.7)	81(100.0)	
	현재 피움	33(56.9)	25(43.1)	58(100.0)	
음주	안 마심	148(57.8)	108(42.2)	256(100.0)	1.020 (0.601)
	마시다 끊음	18(58.1)	13(41.9)	31(100.0)	
	현재 마심	74(55.4)	60(44.8)	134(100.0)	
선호음식의 강도	구분 없음	32(35.2)	59(64.8)	91(100.0)	27.489 (0.000)
	연한 음식	172(66.7)	86(33.3)	258(100.0)	
간식섭취 정도	안함	34(57.6)	25(42.4)	59(100.0)	0.746 (0.388)
	가끔	36(56.7)	104(43.3)	240(100.0)	
	자주	34(68.0)	16(32.0)	50(100.0)	
선호음식	채식	94(64.8)	51(35.2)	145(100.0)	4.202 (0.122)
	육식	14(56.0)	11(44.0)	25(100.0)	
	구분	96(53.6)	83(46.4)	179(100.0)	
단음식 선호도	달게	43(65.2)	23(34.8)	66(100.0)	4.396 (0.111)
	보통	105(53.6)	91(46.4)	196(100.0)	
	안달게	56(64.4)	31(35.6)	87(100.0)	
짤음식 선호도	싱겁게	49(63.6)	28(36.4)	77(100.0)	1.255 (0.534)
	보통	93(56.0)	73(44.0)	166(100.0)	
	짜게	62(58.5)	44(41.5)	106(100.0)	

상실된 치아로 인해 노인들은 생명유지의 기본이 되는 음식물 섭취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상생활의 질 저하 현상 등 여러 가지 장애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노인의 구강건강상태를 증진시켜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의치와 같은 보철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가의 비용이 드는 부담 때문에 의치요구율과 의치사용율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다(장현숙, 2008). 또한 의치의 평균 수명은 6.6년이므로 모든 의치를 매 6년마다 새로 제작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의치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문제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의치장착실태를 조사 보고하여 노인의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강관리습관, 생활습관과 의치장착여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구강건강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의치장착율은 58.5%로 1998년에

조사한 36.0%(정학균, 1998), 2007년 (김승희, 2007) 49.1%, 2009년 (주은주, 2009)의 51.1%보다 높지만 75.0%보다(정미애, 2005)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타 연구와 결과가 상이한 것은 시간적 변화,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이 등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조사에서 의치장착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의치보철사업 및 의치에 대한 노인들의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된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조사된 58.5%의 의치장착율은 조사대상 노인의 구강건강 수준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심각함을 알려주는 지표라 할 수 있고, 의치장착율과 요구율 간의 차이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의치의 재제작 등 잠재적 수요를 더한다면 대다수의 노인에게 의치공급은 필수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노인이 주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계속 노인 구강건강관리제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 의치보철을 의료보험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는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치장착자 중 15.2%는 상악에만, 15.7%는 하악에만 의치를 장착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의치장착여부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의치 장착율이 높았으며($p=0.025$), 나이가 많을수록($p=0.000$) 의치 장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지운, 2003). 이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의치 장착율이 높은 것은 여자의 경우 의치장착의 일차적 목적이 저작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심미기능 회복에도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연령이 높을수록 의치 장착율이 높은 것은 연령에 따라 상실치아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이희경, 2008).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p=0.000$) 의치 장착율이 낮은 것은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전반적인 구강건강은 낮아진다고 주장과 같았으며(강지운, 2003), 직업이 있을수록($p=0.006$), 부부나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일수록($p=0.016$) 의치 장착율이 낮은 것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양호한 집단에서 구강건강상태가 더 양호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였다(박영애 외, 2006). 구강관리습관에 따른 의치장착여부에서는 매 식후 이를 닦는 경우일수록($p=0.029$), 구강위생 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일수록($p=0.000$) 의치 장착율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잇솔질 시기에 대한 결과는 76.5%와는(손우성 외, 1996) 다소 차이

가 있었으며,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정도는 2006년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와 같았다.

노인의 구강관리습관은 노인의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다(이현우 외, 2005). 따라서 비록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잇솔질 및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등의 적절한 구강위생관리를 통해 구강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구강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생활습관에 따른 의치장착여부를 보면 혼자 식사 하는 경우($p=0.009$), 운동하지 않는 경우($p=0.000$), 연한 음식을 선호하는 경우($p=0.000$) 의치 장착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생활습관이 좋을수록 의치 장착이 적었던 본 연구 결과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조사된 의치장착실태로 대구·경북 지역 노인의 구강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의 의치접근성은 경제적 여건이 허락지 않아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의치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제작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 의치의 잠재적 수요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빈곤층인 노인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인 의치 공급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구강관리습관, 생활습관 등이 양호할수록 의치를 장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노인인구 뿐 아니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구강관리습관 및 생활습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강건강습관 및 생활습관 등은 일부 항목만을 응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연구결과와 해석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구강검사를 통한 실제 의치 사용 실태를 파악해 보는 등의 전향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노인들의 의치장착실태를 조사하고 인구·사

회학적 특성, 구강관리습관 및 생활습관과 의치장착여부와
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노인
3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자의 의치 장착율은 58.5%였다.
2. 여자일수록(p=0.025), 나이가 많을수록(p=0.000),
학력이 낮을수록(p=0.000), 직업이 없을수록(p=0.006),
혼자 사는 경우일수록(p=0.016) 의치 장착율이 높았다.
3. 매 식후 이를 닦을수록(p=0.029),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할수록(p=0.000) 의치장착율이 낮았다.
4. 혼자 식사 하는 경우일수록(p=0.009), 운동을 하지
않을수록(p=0.000), 연한음식을 선호할수록(p=0.000)
의치 장착율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구·경북지역 노인의 구강건강상태
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구강관리습관, 생활습관 등이 양호할수록 의치를 장착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노인인구 뿐 아니
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구강관리습관 및 생활습
관이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강기호, 고명연, 고흥섭 외 26인. 노인치과학. 지성출판
사, 23-30, 2001.

강자운. 구강건강과 노인들의 영양 상태에 관한 실태조
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권미영, 양진영. 노인의 구강보건행위와 구강건강상태와
의 관련성 조사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지, 6(4),
271-276, 2006.

류동희, 윤수홍, 송근배, 조광현, 정성화. 대학병원 치과
환자들의 가철성 의치 사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분

석.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4(2), 159-170, 2000.

김승희. 광주지역 노인의 구강보건실태 조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박영애, 정성화, 윤수홍, 최연희, 송근배. 포항시 일부지
역 노인의 전신건강 및 식생활 습관과 구강건강과
의 관련성.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0(2), 183-192,
2006.

박주희, 권호근, 김백일, 최충호, 최연희. 무료양로원 거
주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의 구강건강상태. 대한
구강 보건학회지, 26(4), 555-566, 2002.

반용석, 송근배, 정성화, 조광현. 치과의원 환자들의 가철
성 의치사용에 대한 만족도 분석. 대한구강보건학
회지, 25(1), 79-94, 2001.

보건복지부. 2003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66, 2003.

보건복지부. 2006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
부, 257, 298, 2007.

손우성, 허복, 박수병, 김진범. 도시 저소득층 고령주민의
구강건강실태. 대한보건교육학회지, 13(1), 72-87,
1996.

이정화, 성미경, 강현경, 조갑숙. 울주군 일부지역 노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지 및 수준에 관한 조사. 한국치
위생과학회지, 7(4), 281-286, 2007.

이희경, 송근배, 이성국, 박지혜, 최연희. 일부 농촌지역
노인에서 치아상실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의 관련
성.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2(5), 495-503, 2008.

이현옥, 김진. 노인의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관리행위
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과학회지, 5
(2), 263-276, 2005.

윤영숙, 권양옥. 전국 보건소 치과위생사의 노인의치보철
사업 현황 및 전망. 한국치위생과학회지, 6(4),
255-261, 2006.

장익준, 정성화, 박영애, 이희경, 송근배. 가철성 의치장
착노인의 의치만족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0(3), 360-369,
2006.

장현숙.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보건의료정책세

- 미나 첫 번째, 40-48, 2008.
- 정미애, 정상희, 최정이.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구강건강실태 비교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5(2), 263-276, 2005.
- 정학균, 국승호, 김재곤, 김동기. 영호남농촌지역 노인구강실태조사. 구강생물학연구, 22(1), 291-308, 1998.
- 정효경. 치과내원 환자들의 치과보철치료결정 및 보철치료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 주은주, 김동기. 한국 노인 본인이 인지한 양대 구강병 관련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3(1), 71-81, 2009.
- 최순례, 정성화, 배현숙, 유영아, 최연희, 송근배.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의치보철사업 수혜자의 의치만족도와 구강건강 관련 삶의 만족도 조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9(4), 474-483, 2005.
- 통계청. 2008고령자 통계, 200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전략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90-92, 2000.